

축산업계 동향

농수산부, 사료용 옥수수

절약사용 추가지시

- 육계사료 판매억제조치 추가지시 -

지난 4월13일자로 하달한 불량육계 및 육계사료생산판매 억제지시를 내린바 있는 농수산부는 이를 보완, 변경지시 공문을 다음과 같이 하달했다

농 수 산 부

사료1162, 52-1238 1978. 5. 29

수신: 대한양계협회장

제목: 사료용 옥수수 절약사용 및 육계사료생산

1. 사료 1162, 52-796(78. 4. 14) 및 사료 1162, 52-857(78. 4. 20)와 관련됩니다

2. 관련호로 지시한 사료용 옥수수 절약사용 및 육계사료 생산판매억제 조치에 대하여 별첨(사본)과 같이 농협중앙회장과 한국사료 협회장에게 지시하였으니 배합사료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무허가 부화장에서 분양되는 세미, 왕병아리 등의 근절에 적극 협조하기 바람.

농수산부가 농협중앙회장과 한국사료협회장에게 5월29일자로 하달한 별첨 공문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78년 6월부터 사료용 옥수수 사용량은 월 123,000톤에서 78년 사료수급계획에

의한 월간사료용 곡류수요량 125,870톤으로 한다

(2) 사료용 옥수수 배정비율은 사료수급 계획상 배정비율 농협 15.5%, 사협 87.4%를 78년 1~4월까지의 실제 사용실적 누계비율인 농협 12.6%, 사협 87.4%로 조정하여 78년 6~7월까지 2개월간 적용한다.

(3) 육계사료의 3월 실적수준이내의 생산 및 판매억제는 이를 자율조절로 유도하고 특히 무허가 부화장에서 생산되는 세미, 왕병아리 등의 분양은 계속 억제토록 신규입식 육계사료는 허가부화장에서 생산되는 육계에 한해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사료값 안정기금 140억원 적립

- 5월말 현재 -

한국사료협회는 5월말현재 사료가격안정기금으로 약 1백40억원을 적립했다.

협회에 따르면 배합사료원료로 들어오는 옥수수 수입가격과 국내 사료판매가격간의 차액을 사료가격안정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5월말 현재 1백40억원을 조성했다.

국제 옥수수 값이 지난해 부터 계속 안정세를 유지, 수입가격이 톤당 1백달러(FOB)안팎이었는데 최근에는 1백32(C & F) 달러까지 올라 국내기준가격에 육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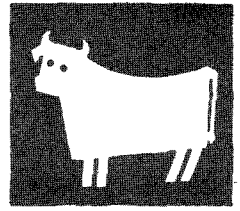
81년 농가소득 2백 45만원 목표

(주곡이외의 작물 증산에 역점)
(축산과수등 단지 배로 조성)

농수산부 산지개발사업 과감히추진

농수산부는 쌀·보리등 식량작물위주의 농가소득증대는 한계점에 다달은 것으로 판단 축산과수·채소 잠업 특작물증산시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방침이다.

7일 농수산부당국은 77년도 호당농가소득 백43만 2천 8백원을 오는 81년에는 73%가 많은 2백45만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79년부터 81년까지의 3차 농어민소득증대 특별사업계획을 마련 주곡이외 축산물·과수·채



소·특작물등 수요신장율이높고 수익성이 좋은 작물증산시책을 강력히밀고나가기로 했다.

농수산부는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히 산지개발을 과감히 전개하여 재배면적을 확대하는데 중점적으로 투융자하며 단지조성사업은 현재 과수1백4곳 채소93곳 잡업1백7곳을 오는 81년까지 배로 늘리기로 했다. (시사)

단백음료 개발에 착수

- 콩 원료 제품 다양화 -

동방유량 내년부터 생산계획

종합식품가공업체로 반돌음하고 있는 동방유량주식회사는 내년엔 콩을 원료로한 단백질식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동사는 조식단백질식품인 대두육개발에성공한데 이어 종합식품가공회사로서의 제품 다양화를 위해 콩을 원료로한 단백질식료개발에 착수 시장성조사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생산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는 정식품에서「베지밀」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는 비린내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 판매신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비린내를 완전 제거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기호에 적응하는 향료를 첨가하여 단백질이 풍부한 새로운 스타일의 영양음료를 개발, 시유 유산균발효유 과일벡타등 기존 음료의 판매대열에 뛰어들 계산이다.

유제품 항생물질 검사에 착수

- 검출되면 1차경고 3차엔 정지처분 -

농수산부 시도에 공정 취급지시

농수산부는 1일부터 모든 유제품의 항생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검사 업무에 착수했다

TTO (Tripheny Tetrazoolium chloride)

방법으로 실시하는 유제품 항생물질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타나면 원유의 경우 유가공업체에서 낙농가들로 부터 수유를 거부하고 2차검사에서도 항생물질이 검출되면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계속 수유를 거부해야 하며 만약 시유 분유등 가공제품에서 항생물질이 검출되면 1차경고 2차 해당품목 3일간 제조정지 3차 1개월 제조정지해야 한다.

한편 농수산부는 유제품항생물질 검사를 둘러싸고 일어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 시도는 검사에 공정을 기하고, 가공업체에서 원유확보를 위해 철저히 감독하도록 지시했다.

가축증식기반 확충지원

축산진흥회 올해 61억투입

축산진흥회는 가축증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총69억 6천만원을 투입기로 했다.

15일 축산진흥회에 따르면 이 자금은 한우입식및 비육을 위한 사료와 전업및 기업목장육성을 위해 쓰여지는데 연말까지 총아지 4천6백67두 입식에 7억원 육우 1만두도입에 25억원을 각각 용자한다.

또 전업 및 기업축산업자를 지원하기위해 30억원 면양목장 조성과 양토 마을조성에 2천만원 대단위목장 10곳 5천만원씩 5억원을 용자한다. (시사)

국제옥수수값 떨어져

20만톤 톤당 127달러에 구매

16일 농수산부에 의하면 최근 사료용 옥

축산업계 동향

수수 20만톤 낙찰가격이 평균 톤당 FOB 1백27달러로 이는 지난 5월에 구매한 가격보다 5달러가 떨어졌다

농수산부는 올해 사료용으로 옥수수 1백50만 톤을 공급할 계획인데 최근 구매한 20만톤을 포함해 울들어 95만톤을 사들였다.

농경지 목장전용 허용

농수산부 1 정보 범위내

농수산부는 목장조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1정보 범위내에서 농경지전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15일 농수산부에 의하면 축산진흥을 위해 대단위목장조성을 유도하고 있으나 농경지가목장가운데끼어있어 목장조성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은것을 감안, 1 정보 범위내에서는 목장조성자가 토지를 구입하여 초지를 조성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런데 현행 농경지보전법상에는 논및 경사도 15도미만의 밭을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다.

올해 쇠고기 판매수익

2백 40억원

농수산부 3 만톤수입 톤당 80만원 남아

올해 수입쇠고기 판매수익금이 2백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8일 농수산부·축산당국에 따르면 당초 올해 쇠고기 2만톤을 수입하여 1만8천톤은 농협직매장및 정육점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 공급판매하고 2천톤은 군납하여 톤당 판매수익금 80만원씩 모두 1백60억원을 축산진흥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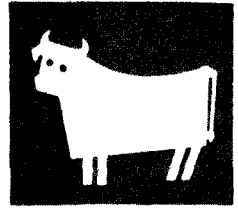
기수요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1만톤을 추가 모두 3만톤을 들여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 쇠고기판매 수익금도 2백4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동청 각 사업장에

하기휴가 실시지시.

노동청은 15일 전국 각 사업장에 근로자들의 건강이 충분히 보호유지 될 수 있도록 하절기 휴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를 통해 하절기 6, 7, 8월중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근로자들이 積置해둔 연월차휴가를 기간중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질병을 예방하며 근무 의욕을 북돋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 하였다. 노동청은 또 근로자들의 휴가기간은 1인당 최소한 1주일 정도는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하기 휴가에 따른 특별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고 수당으로서 하기휴가를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밖에 하기 휴가를 실시 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거나 실제보다 많이 한것처럼 허위보고하는 사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으로 대체하는 사례를 발견하면 엄중문책, 입건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업체는 생물을 취급하므로 발생하는 제문제를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하기 휴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되겠다. 노동청은 또 정년퇴직자가 위탁사원으로 신규로 채용되었다고 할지라도 사용자와 고용종전관계를 맺고 있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하였다. 또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정한 퇴직금은 물론 휴가청구권등 근로기준법상의 혜택을 배제할수 없다고 판시 이와 같은 유권 해석을 하였다.

일부 영, 호남 지역 수해 한해 피해극심

-육계업자에 특히 타격 커-

부산, 목포등 일부 지역에 극심한 한해로 닭에 먹일 물이 없어 양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람도 식수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신문지상을 통하여 이미 보도 되었으며 특히 부로일러의 경우 도계할 물이 없어 부로일러가 팔리지 않는 옷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호우로 인해 농장이 침수되는등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 관계 당국에서는 조세등에 반영하여 옹분의 조치를 취하겠으나 한해와 수해를 당한 동업자에 양제인 서로 따뜻한 위로의 마음이 전달 되기를 바란다.

농수산부 배합사료

가격조정

작년 8월21일부로 배합사료가격을 인상 조치한 바 있는 농수산부는 최근 ① 의제 매입공제 대상품목의 변동 ② 국제 옥수수 가격상승 (130~135\$/톤당) ③ 소맥도입감축에 따른 소맥피 생산저조로 인한 배합비 변동 ④ 기업이윤(사료공장)이 인하되었으나 (4%→3%) 76국세청 소득표준율은 4%, ⑤ 사료성분량 한도고시 개정시행 (78. 6. 1) ⑥ 주요단백질원료 가격하락 및 도입물품 관세율 인하 등 제반여건 및 상황의 변동

을 이유로 6월 1일부로 배합사료가격을 전면 재조정했다.

결국 일반사료 공장의 경우 어린 병아리용은 포대당 (20kg) 12원, 산란말기는 7원 20전, 육계전기는 1원40전, 육계후기는 2원20전, 종계용은 1원이 인하되었으며 큰 병아리용은 예전 전기가격에 비해 2원80전이 인하되었다.

오진양행, 세미나성료

- 부화 및 기계설비에 관해 -

축산시설 전반에 대한 시설자재및 기술용역을 취급하는 오진양행(대표: 정진국)은 지난 6월 7일, 미대사관내 무역관에서 부화및 Feeding System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백여명의 양제인및 업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E. Holzer Inc.의 업무소개로 부터 자동화된 부화기및 부화장시설, 종계장및 산란농장 시설에 관하여 E. Holzer Inc.의 부사장 Jacques Frocheur씨의 강의가 오진양행의 정진식씨의 통역으로 슬라이드 상영과 함께 있었다.

이어 양제경영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은후 미국 Flying Tiger항공회사의 방제회사로서 시설금융(Ieasing) 업무를 수행하며

이미 국내유수의 부화장과 계약을 맺은 바 있는 타이거 리싱(대표: 한중현)의 업무부장 조태화씨의 업무소개가 있는 다음 라테일 파티가 있었다.

뉴질랜드산 육우5,000두 입하

뉴질랜드산 육우 8백9두가 26일 부산항

축산업계 동향

에 입하되어 6월6일부터 농가에 분양 되었다. 농수산부의 금년도 육우도입계획 1만5천두중 대단위목장 1만두 민간에 5천두를 수입입식 계획으로 농협은 지난 2월 뉴질랜드산 5천두를 C&F 450\$로 구매계약 5월2일 1,100두 5월26일 809두 나머지는 현재 접수중에 있다. 이번 수입되는 육우는 헤어로드, 애버린 앵거스로 체중은 250kg 정도이며 농가분양가격은 약30만원인데 이중 검역료등 수수료 약 5만원을 제외한 25만원은 융차지원된다.

유일농원 동부출장소개설

소장에 함경섭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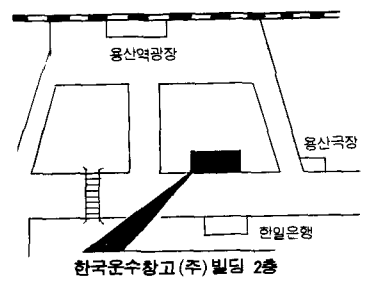
강건한 우량추의 생산공급과 거래상의 신뢰를 사업지침으로 삼고있는 유일농원(대표:이규상)은 고객에 대한 봉사활동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동부출장소(서울시 강남구 천호동 457-12 전화 48-9445)를 개설하여 함경섭(전 삼일농장근무)씨를 소장으로 임명하였다.

칠성농장 서울사무소 개설

미국하이라인, 인디안리버, 피터슨 원종농장의 한국총대리점인 칠성부화장은 최근 상호를 칠성농장(대표:김상)으로 변경하고 사세를 확장,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였다.

7월1일 개업식을 가진 칠성농장 본사의 주소는 서울시 한강로 2가 329-1 전화는 794-4578 로 반길성(건국대 축산과졸)를 상무로 임명하였다.

(약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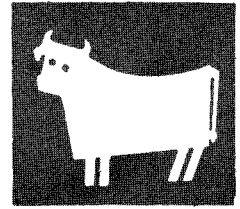
대한제당(주) 국내최대 규모의 사료공장 건설

대한전선그룹의 대한제당(주)은 배합사료 공장 건설에 참여, 일산 600M/T규모의 대단위 공장건설에 착수했다.

동사는 수륙양용 교통의 요지인 인천시 월미도에 10,000여평의 부지를 확보, 내외자 35억을 시설자금으로 투입하여 일본 유수의 사료 프랜트 건설업체의 기술용역을 받아 현대식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며 주요기계류는 이미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의 사료공장 건설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대단위 주부원료(主副原料) 싸일로 : 저장능력 15,000톤, 자체하역 설비보유.
- (2) 중앙조작반(中央造作盤)에 의한 완전자동화; 펀치카드 시스템 도입.
- (3) 롤러밀 및 시프터 설치; 곡류를 균일하게 분쇄하여 각 가축별로 알맞는 입자선택 배합.
- (4) 프레이킹밀(壓片飼料設備); 사료용곡류를 스팀으로 가압처리 함으로서 소화율 향상, 증체율을 크게 개선.
- (5) 펠릿트 및 크럼블러(crumblor) 설치; 증기가압처리하여 펠릿트 사료제조, 사료효율개선, 사료낭비방지, 사료급여의 자동



화 용이.

- (6) 당밀 첨가 시설; 제당공장의 부산물 이용, 젖소 및 비육우사료는 물론 양돈, 양계사료에 첨가 기호성증진
- (7) 우지첨가시설; 고단백, 고에너지 사료제조 (부로일러등)
- (8) 자동포장설비; 무인포장, 고도의 정밀도 보장.

또한 동사에서는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컴퓨터를 도입 사료배합의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판매서비스 제도면에서도 획기적인 방법을 채택 벌크카(Bulk car)에 의한 무포장 사료의 배달 및 농가에 사료저장조를 제공 축산업 자동화를 선도할 계획이며 사양가 현지 서비스체제를 갖춰 고도로 훈련된 판매원에게 기동성을 부여 고객과 함께 일하는 고객 중심의 판매서비스를 제공하리라 한다.

**- 한국바이엘화학
판매고 계속 상승 -
신제품 살서제 "라쿠민" 시판예정**

한국바이엘화학(대표 김길원)은 지난 5월 말 결산에서 업계에서 최초로 월 판매액 2억 돌파, 전 직원이 한자리에서 자축회를 가졌다 또한 동사는 계속해서 신제품을 개발, 취급품목을 확장하고 있는데 6월초에 시판된 항생제 판마이신, 판피드, 비타민 수용액 바비솔AD³E를 비롯, 쥐의 피해로 골치를 앓고 있는 양축가들을 위하여 독일 바이엘의 특허품인 안전한 살서제 "라쿠민"을 곧 시판할 예정인데 본 살서제는 인축에 거의 무해한 안전한 제제로서 대, 소규모 농장과

사료공장에서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 한다.

업계 인사

- 한국사료협회 (회장: 강태현)에 이종완(전 축산시험장) 씨가 기획조사부장으로, 옥영철(전국대 축산대졸) 씨를 기획부에 특채
- 건국배합사료의 대표이사로 송호수씨가 취임.

○ 대한제당(주) 사료사업부

- 김 영수(전 대한전선) : 사료전설단장
- 김 진의(전 퓨리나농장장) : 사료영업부장
- 남 대현(전 서울미원사료영업부) : 사료 생산부차장.

- 강 정구(전 대한전선) : 사료 영업차장
- 신 중한(전 서울미원) : 사료 생산과장
- 홍 성택(전 중앙약품) 사료 품질과장
- 이 성재(전 천일곡산) : 사료업무과장대리
- 이 범호 : 사료영업부

■ 전화 변경■

● 한국화이자

본사 : 269-5641~7
 농축부야간직통 : 269-9958

● 주식회사삼양사 : 261-0161~9 · 261-1641~9

● 동두천지역 1354 번으로 장거리 자동전화 개통

동두천가축약품상사(대표: 정왕모) : 2704
 대한양계협회·동두천분회(분회장: 최진삼) : 2374

● 축산진흥회 의 각 부서별 전화가 대표전화 ⑤5 5141~50으로 통합됐다.